

프랑스 영상문화 <제 7 차시>

신화 서사의 영상화: 『흑인 오르페 Orfeu Negro』에 나타난 신화적 상징 해석 (1)

1. 들어가면서
2. 영화와 신화의 인물과 공간
 - 2.1. 인물의 탄생과 공간

부산대학교 사범대학 불어교육과
김 종 기

생각해 보기

1. 신화(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오르페우스 서사)가 어떻게 영상화 되고 있는가?
2. 이러한 관점(문제 1)에서 감독의 탁월한 신화 해석이 극명하게 드러난 시퀀스를 유리디스가 전차 차고에서 죽는 장면이라고 본다면, 그 근거를 설명하라.
3. 오르페가 태양(아폴론)과 관련된 인물임을 드러내는 요소는?
4. 유리디스가 하늘에서 온 요정임을 상징하는 소품은?
5. 오르페가 죽을 것이라는 복선이 나타나는 장면들은?
6. 유리디스가 죽을 것이라는 복선이 나타난 장면들은?
7. 유리디스가 죽은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생각해 보기

8. 유리디스와 세라피나는 영화의 표면적 서사에서는 각각 다른 인물이다. 그러나 심층적인 차원에서 이들을 동일인물로 해석할 수 있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가?
9. 이 영화에서 ‘노래, 음악 혹은 예술’은 인간에게 있어 무엇을 의미할 수 있을까?
10. 영화의 제목은 “**혹인** 오르페”이다. “혹인”의 의미, 상징은 무엇일까?
11. 마지막 장면이 상징하는 의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12. 내가 생각하는 이 영화의 주제[영화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13. 신화의 등장인물과 영화의 등장인물을 그 이름을 통하여 비교해 보라.

그 결과 영화 속 인물들의 신화적 캐릭터/역할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이름 (신화 / 영화)	등장인물의 캐릭터	
	신화	영화
오르페우스 / 오르페		
에우리디케 / 유리디스		
모이라 혹은 마이нас / 미라		
세라핀 / 세라피나		

13. 신화의 등장인물과 영화의 등장인물을 그 이름을 통하여 비교해 보라.

그 결과 영화 속 인물들의 신화적 캐릭터/역할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이름 (신화 / 영화)	등장인물의 캐릭터	
	신화	영화
작은 양 / 베네디토		
헤르메스 / 헤르메스		
아리스타이오스 / 해골 분장 사나이		
카론 / 병원 청소부		
케르베로스 / 케르베		

1. 들어가면서

프랑스, 이탈리아, 브라질 3개국 합작 영화인 『흑인 오르페』는 마르셀 카뮈 Marcel Camus가 1959년 Vinicius De Moraes의 연극 "Orfeu da Conceição"를 스크린에 옮긴 것이다.

제목이 시사하듯 이 작품의 근본적인 서사는 그리스 신화 중 트라키아 Thrace를 배경으로 한 오르페우스와 에우리디케 서사에 기초하고 있다. 이는 우리에게 매우 친숙한 주제이다.

시놉시스로 정리해 보자.

리오 카니발 전날, 자신을 죽이려 하는 고향의 남자를 피해 유리디스는 배를 타고 강을 건너 리오에 사는 사촌 세라피나를 찾아온다.

세라피나 오두막 바로 옆에 사는 오르페는 전차 운전자이며 미라의 약혼자이다. 전차에서 만난 둘은 오르페의 집에서 다시 만나고 곧장 사랑에 빠진다.

카니발에서 우연히 세라피나를 대신해 춤을 추었던 유리디스는 결국 고향의 남자에게 쫓기고 전차 종점에서 전기에 감전되어 죽는다.

시체 안치소에서 유리디스의 시신을 찾아 안고 돌아오던 오르페 또한 광기에 휩싸인 미라가 던진 돌에 맞아 절벽에서 떨어져 죽는다.

다음날 아침 바빌로니아 마을 언덕 위에 다시 태양은 떠오르고 오르페의 기타를 치며 마을 아이들이 노래하며 춤을 춘다.

그런데 영화의 시놉시스를 통해서 우선 신화의 오르페우스 서사가 현대의 영화로 재현되는 과정에서 많은 변형이 가해졌음을 쉽게 알 수 있다.

고대 그리스의 신화인 오르페우스 서사를 현대의 리오 데 자네이로의 삼바축제로 그 시공간적 배경을 옮긴 것이다.

전체적으로 전차가 다니는 현대라는 시대적 배경과 현대 도시인 리오 데 자네이로라는 공간적 배경, 또한 흑인이라는 인물 설정이 그것이다.

서사의 근본적 구성요소인 사건과 인물, 그리고 배경의 이러한 변형은 작가-감독이 의도하는 바에 따른 많은 상징과 해석의 긴장관계를 새롭게 설정할 것이다.

영화는 영상과 음향을 그 주된 표현 수단으로 가진다. 그런데 언어로 구성된 신화의 서사와 비교할 때 특히 서술과 묘사의 관점에서 영화의 서사는 그 대상에 관한 시각적, 청각적 구체성을 요구할 것이며 재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영화 『흑인 오르페』에 나타난 시공간과 인물의 구체성은 신화의 사건을 황당한 옛이야기가 아니라,

현대의 구체적 인물과 배경, 사건에 근거하는 사실적 차원으로 변형시키고 재구성시킴으로써

‘옛날, 그곳’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여기’의 구체적인 이야기임을 효과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

영화를 통해 구축된 이와 같은 이야기의 사실성은 고대 신화 자체를 모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징적 의미를 ‘지금, 여기’의 관점에서 재현하고 해석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영화는 고대 그리스 신화 서사를 오늘날의 이야기로 해석하고 재창조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영화에 나타나는 고대 신화의 서사는 사실성을 획득하고,

이 사실성은 압축적이고 상징적이며 또한 시적인 대사, 화려한 화면과 현란한 음악을 동반한 극적 긴장감을 통하여 영상화됨으로써 오늘날의 또 다른 신화로 표현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영화를 오르페우스 서사와 비교하면서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살펴볼 것이다.

1. 이 영화의 근본적인 구성과 이에 따른 변형이

어떻게 영상을 통하여 표현되었는가?

만약 신화가 하나의 심층구조라면 영화는 여기에 기초한 변형일 것이며, 이에 따라서 다양한 의미효과를 함의할 것이다.

이러한 변형은 따라서 영화를 통한 신화의 다양한 해석 가능성을 열어둘 수 있다는 전제가 될 것이다.

2. 따라서 이 영화가 신화의 틀을 넘어 보여주는 아폴론적 세계관과 디오니소스적 세계관의 대립·갈등·혼융의 양상, 현대 사회가 가진 사회학적 소외의 문제, 그리고 플라톤적 세계관이 함의하고 있는 예술의 의미 등으로 그 해석 공간을 어떻게 확장해 가고 있는가?

이러한 과정에서 또한 영상화의 기법도 함께 살펴 볼 것이다.

2. 영화와 신화의 인물과 공간

2.1. 인물의 탄생과 공간

신화의 배경은 트라키아라는 지방이다.

“ 제우스는 기억의 여신인 므네모쉬네와 아흐레 밤을 동침하고, 이 기억의 여신은 아홉 자매를 낳는데 이들이 신과 인간 세상의 온갖 예술을 담당하게 될 무사이(Mousai)여신들이다. [...]

음악의 신 아폴론이 무사이 9자매의 막내인 칼리오페를 사랑한 적이 있다. 음악의 신과 현악기의 여신이 어울린 것이다.

그리하여 칼리오페가 아들을 낳으니, 그가 바로 천하 제일의 명가수라고 불리는 오르페우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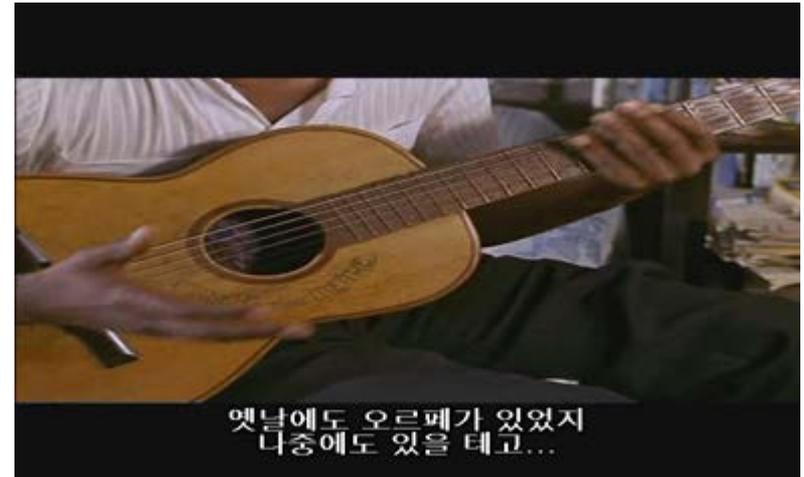
(이윤기, 「제 7장, 노래는 힘이 세다」, 『이윤기의 그리스 로마 신화』, 웅진닷컴, 2000, pp. 222-242.)

그런데 영화는 오르페의 출생과 배경을 어떻게 제시하는가? (0:14:26)



어떤 정보도 직접 제공하지 않는다. 단지 결혼 신고를 담당하는 시청 직원의 농담에서,

그런데 영화는 오르페의 출생과 배경을 어떻게 제시하는가?



오르페의 기타에 쓰인 글귀 “오르페는 나의 주인이다,” “이전에 오르페가 있었고 이후에도 다른 오르페가 있을 거야. 그러나 지금 오르페는 바로 나야” 등과 같은 대사를 통하여 오르페를 고대신화의 인물과 연관시키고 있다(0:26:49)

영화 서사가 제시하는 이러한 '또 다른 오르페' 혹은

'지금의 오르페'라는 암시의 기능은?

→ 이 영화 전체의 서사구성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마지막 시퀀스 참조].

이러한 까닭에 영화의 오르페가 아폴로 그러니까 태양과 관련된 인물임이 드러나는 방식은?

→ 아주 간접적이다.

신화에서 볼 수 있는 오르페우스의 출생 내력과 그가 태양신[아폴론]의 아들임이 영화에서는 그 양식적 기법은?

→ 제유적 상징을 통하여 제시되고 있다 :

오르페 = 태양을 나타내는 그 간접적인 방식이란?

꼬마들이 오르페에게 노래를 불러 태양을 뜨게 할 수 있느냐고 묻고



오르페 = 태양을 나타내는 그 간접적인 방식이란?

오르페가 유리디스에게 노래를 부를 때, 태양은 떠오른다.



이제 먼동이 트고
우릴 위한 아침이 밝어오네



행복은 당신과 함께
날 기다리네



봐, 해가 떠올라

오르페의 직업은?



전차 운전자. 그런데 왜 전차 이름이 '바빌로니아'일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바빌로니아'는 또 무엇을 지칭하는가 ?



오르페가 사는 마을의 이름, 그가 지휘하는 (마을)무용단의 이름이다.
이들은 축제에서 춤을 출 때 태양의 문장이 달린 막대를 들고 있다.
결국 커다란 태양의 형상이 나타난다.

오르페 = 태양을 나타내는 그 간접적인 방식이란?
축제 때 오르페는 아이들과 함께 자신의 집에서 큰 태양 장식물을 옮긴다.



유리디스의 탄생은 어떻게 묘사되고 있는가? 이를 위해 설정된 모티브는?



매우 구체적이다. 이러한 설정을 위해 쓰인 은유는 강 건너기와 그녀의 스카프이다. 강을 건넌 배에서 내릴 때 허리에 걸치고 있었던, 하얀색 원피스와 대조되어 선명히 드러난 하늘의 색깔인 파란색 스카프. 우선 스카프를 보자.

유리디스의 탄생은 어떻게 묘사되고 있는가? 이를 위해 설정된 모티브는?



'하늘의 집 les Maisons du Ciel'(점성술에서 말하는 별자리)이 그려져 있으며 그녀는 작은 양과 함께 거기에서 태어났다고 서술된다. 그러면 스카프는 무엇을 상징할까?

영화는 이러한 장치를 통하여 유리디스의 고향마을이 '여기 이 땅'의 어느 곳이 아닌 '저기 하늘'임을 은유하고 있는 것이다.

비록 그 탄생이 구체적으로 설명되고 있으나 그 설명 방식이 은유됨으로써 오르페우스의 탄생과 마찬가지로 상징성을 증폭시킨다.

그런데 신화의 세계에서 인간의 탄생과 죽음은 모두 강과 관련되어 있다. 죽음이 스틱스와 아케론 강에 의해 구분된다면, 삶-탄생은 레테 강을 통해서이다.

"레테 강은 삶 쪽에서 '여기'와 지옥을 나누어 주고, 마찬가지로 스틱스 강과 아케론 강은 죽음 쪽에서 '여기'와 지옥을 분리한다."

'여기' 삶 - 레테(LetHe) 망각, - 코키투스(Cocytus) 탄식/비탄, - 플레게톤(Phlegethon) 불, - 아케론(Acheron) 슬픔/비통, - 스틱스(Styx) 증오 - '저기' 지옥/죽음

신화가 말하는 생명의 탄생에 관한 설정은 영화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



영화의 시작부터 매우 암시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마치 레테 강을 건너듯 그녀는 배를 타고 강을 건너 도시로 들어온다.

그렇다면 아래 시퀀스는 무엇을 말하는가?



카니발을 앞두고 흥청거리며 들떠 있는 '여기' 이 땅 도시에서 매우 **낯설어** **하**
는 모습의 유리디스를 낀 시퀀스를 통하여 묘사하고 있다. 그 의미는?
그녀가 이방인임을, 동시에 죽음의 나라가 그녀의 고향임을 의미한다.

우선 유리디스는 '여기' 이 땅에서 어떤 존재로 비유되고 있는가?



그녀가 배에서 내릴 때 처음 만나는 도시의 사람인 맹인과의 대화에서 그녀는 “새장에 갇힌 한 마리의 새처럼” 비유된다(0:04:57).

그녀가 헌병에게 길을 물어 본격적으로 도시로 들어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이 쇼트가 의미하는 것은? '새'와 비유된 유리디스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영상화되고 있는가?



쇠창살을 훑어가는 패닝 쇼트 panning shot의 마지막 부분에서 카메라가 잠깐 동안 정지되면서 동일한 프레임 안에 그녀와 새장을 중첩시키는 미디엄 클로즈업 (0:07:13),

유리디스크를 대상으로 한 카메라의 이동과 각도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0:07:35).



대형 건물을 매개로 위에서 아래로 천천히 내려가는 카메라 이동[tilt down]과 조안각 bird's eye view으로 제시되는 익스트림 롱 쇼트는 '저기' 하늘에서 그녀를 보는 시각이다. 하늘에서 여기 이땅으로 내려 왔다는 의미이다.

하늘의 존재였던 그녀가 이 도시 그러니까 '여기 이 땅'에 갇힌다는 의미를 고도의 은유로 상징하고 있다.

이러한 영화 속 인물들인 오르페와 유리디스의 '여기 이 땅'의 공간은 리오 데 자네이로라는 도시이며 더 구체적으로는 바빌로니아라는 언덕 위 산동네 마을이다.

그리고 오르페가 카니발에 참여하기 위해 지도하는 무용단 이름 또한 바빌로니아이다.

이러한 '바빌로니아'라는 장소는 어떻게 제시되고 있는가?



이는 자연스레 그가 운전하는 전차의 종착역 이름이 되고 자신이 운전하는 전차 앞면에 마치 스스로의 이름표처럼 크게 쓰여 있었다(0:08:38).

그렇다면 도시 '바빌로니아'에는 어떤 상징적 의미가 있을까?

상징의 차원에서 바빌로니아는 천상의 예루살렘에 반대되는, 천국에 반대되는 도시이다. 한편 어원적으로는 "신의 문"을 의미하기도 하다.

그러나 이 문이 열어 보이는 신은 하늘의 어떤 특정한 시간이 되면 정신적인 의미에 있어서는 인간으로, 인간적 비천함에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지배와 사치 본능의 인간으로 타락하게 된다.

"이 도시는 너무도 찬란하여서 이 세상 어디에도 견줄 다른 도시가 없다"라고 헤로도투스는 쓰고 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파괴되었는데, 그것은 그 모든 것이 유한한 가치에 토대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바빌로니아의 상징은 자신의 아름다움 때문에 단죄된 찬란함의 상징이 아니라, 인간이 정신적 소명을 저버림으로써 스스로 단죄 받은 오염된 찬란함의 상징이다.

바빌로니아는 그러니까 인간의 한 부분만을 고양할 뿐이며 그 결과로 인간을 파멸시키는, 물질적이며 감각적인 세계의 찰나적 승리를 상징한다.

신화의 차원에서 바빌로니아는 “어떤 특정한 시간이 되면 [...] 인간으로 타락하게” 되는 디오니소스적 도시이다.

카니발을 앞둔 리오라는 도시, 특히 구체적 공간으로서 바빌로니아라는 마을이 바로 ‘저기 하늘’과 대립되는 ‘여기 이 땅’이라는 의미가, 그리고 ‘여기 이 땅’에서의 죽음 혹은 멸망이라는 의미가 함의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다음 씬의 대사의 의미는? (0:30:40)



강을 건너 온 도시인 '여기 이 땅'의 새장에 갇힌 낯선 모습의 유리디스,
오르페 또한 새로 비유되고 '여기 이 땅'에 갇혀있음을 의미한다.
그런데 '사랑의 노래', '의미보다는 멜로디가 좋다'는 또한 무엇을 의미할까?

결국 그가 바빌로니아 마을에 살며 그곳으로 가는 전차 운전수이며 또한 카니발에 바빌로니아라는 무용단을 이끌고 참여한다는 서사 등을 통하여 신화 서사가 보여주는 '여기 이 땅'과 '저기 하늘'의 대립이라는 공간의 특성을 이해할 수 있다.

여기에는 또한 오르페와 유리디스가 이 마을, 즉 '여기 이 땅' 찰나의 공간에 사는, 모두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라는 의미가 동시에 함의되어 있다.

이처럼 영화는 영화에 직접 관련시키기 어려운 트라키아라는 신화의 공간과 인물의 특성을 리오 데 자네이로라는 도시, 특히 '바빌로니아'라는 구체적인 마을을 그 배경으로 설정하고 인물의 특성을 은유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신화의 인물과 공간이 가지는 상징적 특성을 구체적인 영상을 통하여 재창조하고 있다.